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11.12월호
1986년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충현교회

목회자의 저서 출판과 그 효과

선배 목사님 한 분이 필자에게 말하기를 “목사가 책을 한 권 출판하면 그 파급효과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교회 하나를 개척하여 종신 목회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막연히나마 무리가 아닌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누가 책을 한 권 출판하였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선배 목사님의 말이 떠오르곤 하였다.

한국교회의 신교 교인수를 8백만 명으로 잡고, 교회수를 4만으로 추산하면 한 교회의 교인 평균수가 2백 명이 된다.

현재 기독교계 출판 동향을 보면 단행본 초판 2천 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초판 2천권이 매진이 되어 책(설교집이나 강해집)을 산 목회자가 거기서 단 한 편씩만 골라 강단에서 외쳐도 일시에 40만 명에게 설교한 계산이 나오고 두 편씩만 설교를 한다면 80만 명이란 엄청난 수로 증가하게 된다. 이 효과를 다른 각도에서 풀이하면 책 한 권을 출판한 것이 교인 2백 명에 해당하는 교회 하나를 개척하여 무려 38년을 설교한 양이므로 이것은 목사가 한 생애를 목회한 기간에 해당하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한 20여년 목회 실적을 쌓은 후에는 자신이 강단에서 외쳐서 은혜를 끼친 설교나 강해, 그리고 자신의 목회방법론을 정리하여 출판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회요, 선교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한국교회에도 자신의 저서를 10 권 이상을 출판한 분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기쁜 현상이다. 이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 뿐만 아니라 다른 면으로 10 교회 이상을 개척하여 이미 38년의 목회생애를 열 번이나 거듭한 것이나 다름없는 업적을 쌓은 결과이다. 더우기 출판한 책이 재판, 3판...판을 중판하게 되면 그 효과는 그만큼 가산이 되는 것이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상급이 클 것이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이 될 것이고, 현직 목회자의 강단사역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혜택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김창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15 권의 책을 출판하셨다. 김 목사님의 저서를 보는 이들이 그 특징을 이야기하기를

“...금번에 그의 풍부한 경험을 정리한 「예식과 설교」라는 책은 특이하고 무게가 있습니다. 이 책은 설교집이라기보다 목회자를 위한 실천신학 부분의 한 교과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목사님은 평하기를 “...재주로 글을 쓰는 분이 있고 또 영으로 글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도 말재주로 하는 분이 있고 영혼으로 설교하는 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인 목사님은 영혼으로 설교하는 분이고 그의 설교가 담긴 설교집은 영혼의 글입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저서를 통하여 김 목사님이 체험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충현교회는 훌륭한 목회자요 저술가인 김창인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감사한다.

충현교회가 그 동안에도 많은 기도와 성원으로 문서선교에 힘써 왔다. 내년에는 이사야 강해 6권을 완간하고 시편 강해와 기타 서적을 출판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온 교회는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자.

주간 이성근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월간 충현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 14권 제 6호
통권 제 137호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임 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 1 말씀에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1.12 월호

차 례

권두언 / 목회자의 저서 출판과 그 효과	주 간 .. 2
이달의 말씀 / 예수님을 맞은 의인 요셉처럼	김창인 .. 4
충현 칼럼 / 보다 나은 한 해를 위하여	김장근 .. 6
평신도를 위한 신학강좌 / 사도신경 총론 VI	임종만 .. 7
이달에 만난 사람 / 인터뷰	조선근 .. 9
· 정년 은퇴하시는 조현명 장로와 함께	
해외여행보고 / 보dana 성전건축을 위하여(3)	이정우 .. 11
나의 유년시절의 크리스마스 /	
· 새벽송을 돌던 기억 속에서	이두란 .. 19
· 성탄극에 어린 크리스마스	한영숙 .. 20
·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희주 .. 21
성탄절의 현대적 의의	조영길 .. 22
독자란	25
추천도서 / 하나님이 주신 삶의 비결	남창우 .. 31
교회소식	편집실 .. 32
선교지소식	세계선교회 .. 34
교우동정	편집실 .. 36
11·12월행사, 편집후기	편집실 .. 38

□ 표지 사진 설명 □



- ① 10분의 장로님을 피택하는 공동의회 장면
- ② 새성전 3차 돌(외장)공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당회장 목사님
- ③ 충현기도원에서 목사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가족, 교역자, 당회원들
- ④ 추수감사절 예배시에 활동하는 유치부 어린이들의 모습

예수님을 맞은 의인 요셉처럼

마태복음 1장 18-25절

김창인

(목사·당회장)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 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하여」(마 1:19)

한 나라에 외국의 귀한 손님이 오실 때에는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고, 품위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택하여 훈련까지 시켜서 외국의 손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망신하지 않고 원하는 일들이 잘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귀한 손님이 오실 때에 그를 바로 영접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신을 하고 나라의 발전에 큰 지장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식입니다.

하물며 우주의 대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을 죄에서 건져 주시려고 오실 때에 그분을 올바르게 영접하는 일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를 영접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성모 마리아와 요셉을 먼저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 1:18).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인격을 한 번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마중 나갈 준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1. 손해를 혼자 당하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인격자입니다

「...가만히 꿇고자 하여」(마 1:19)

요셉은 넓고 또 넓은 큰 인격자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애기를 뱃다는 말을 듣고

‘이제 결혼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법관에게 고소하여 손해 배상을 받아낼까?’

그러지 않고 요셉은 가만히 꿇고 나 혼자 손해보고 그치기로 했습니다. 손해는 혼자 당하기로 했는데, 이 손해는 물질적 손해만이 아니고 명예에 끼치는 치명적인 손해로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야, 야! 저 사람의 약혼한 처녀가 애기를 뱃

대, 그래서 파혼했대”

“그래?”

이제 얼굴을 들고 어디를 다니겠습니까?

이 모든 손해를 혼자 다 당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녀나 과부가 애기를 뱃다는 말이 들리면 두 말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끌어내다가 도로 때려 죽이는 때입니다. 그러니 내가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치명적 손해가 왔다고 해도 남의 생명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드러낼 수가 없어서 가만히 혼자 손해를 보고 말자는 것입니다.

요사이 물질에 손해가 나면 가만 있을 사람이 없고, 물질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도 하려고 덤벼듭니다.

요셉은 물질, 명예, 모든 것에 손해를 혼자 당하고

‘가만히 꿇자. 이미 손해 당했는데 사람에게 받아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자’

그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습니다. 복을 받을만 합니다.

2. 신중히 생각하며 하나님께 의논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마 1:10)

사람은 큰 일, 감격스러운 일을 만나면 생각없이 덤비기가 쉽습니다. 더우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은 좌우를 돌아보지 못하고 미련을 부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일을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 잘못이 있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람에게 입을 봉하여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왜 이 일이 생겼습니까?” 또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한 번만 생각한 것이 아니요, 깊이 깊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대로만 처리해 놓으면 수습할 수 없이 망신하는 날이 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 뒤에 가려 있는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야 망신하지 않고 해결이 됩니다.

3. 즉시 순종하는 인격자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 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 왔으나』
(마 1:24)

하나님의 지시를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안타까와 할 때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마 1:20-21)

꿈을 깨어 일어난 요셉이 ‘이게 무슨 꿈일까? 참 이상도 하지’ 그러지 않고 성경을 아는 요셉은 이사야서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 아내를 데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즉시 순종하고 또한 철저히 순종하는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때가 되어 해산했습니다. 아기가 난 새벽에 목자들이 달려옵니다.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되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갓난애기 앞에 절을 합니다.

♪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바칩니다. 그때에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야, 내가 덤비지 않고 혼자 손해봐도 좋다고 했더니 손해에 비하면 너무나 영광이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받으니 재산도 생겼습니다. ‘야!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구나! 이럴 수가 어디 있노?’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 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가 깃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헤롯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사를 가려면 며칠 동안은 짐을 쟁기는 준비를 해야 하고, 애굽은 이스라엘에서 가려면 열흘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곳인데, 갑자기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밝은 다음에 가자’ 이유를 대며 우물쭈물 하기가 십상인데 요셉은 그 밤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갑니다. 요셉의 순종은 너무나 철저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침착하게 조심할 줄 알아서 사람 앞에는 입을 봉하고 하나님 앞에는 입을 열고 기도하며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앞으로의 할 일을 생각하고 진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옳은 줄 알고도 약하여 행치 못하고, 악인 줄 알고도 미련하여 끊지 못하고,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기 쉬운데, 요셉은 선인 줄 알면 그 밤에 시작을 했습니다.

충현교회의 성도들이여! 선한 일은 머뭇거리지 없이 시작하고 진행하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고생을 생각하지 말고 이해관계, 고락관계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일이면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육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요셉처럼 마음을 준비해서 복받고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할렐루야로 미중 나갈 준비를 잘하여 여러분의 머리 머리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면류관이 씌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다 나은 한 해를 위하여”



김 장 군 목사

(출판국, 청년부 지도, 성경연구원담당)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여 무한히 흐르는 것이며 공간에 대칭되는 것을 말한다.

회람말에는 두 개의 시간이 있다. 하나는 ‘크로노스’(chronos)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ka-iros)이다. 크로노스라는 말은 객관적인 시계의 시간이라고 하고,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이라고 한다.

많은 철학자, 물리학자들이 시간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아무도 시간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유명한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은 절대적인 시간이 존재한다고 하였지만 철학자 칸트(I. Kant)는 절대적인 시간, 객관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시간을 재는 법을 교만해 내었는데 그것이 곧 시계이다.

하루를 24등분하여 놓고서 그 한 부분을 1시간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루는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약속에 불과한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고나면 1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카렌다를 바꾸어 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듯이 앞으로도 지구는 똑같은 궤도를 따라 태양 주변을 돌아갈 것이다. 시계판은 원형이다. 바늘은 그 원형의 시계판을 한 번 돌고나면 제 자리에 오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시간은 등근 것이 아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것은 태초의 시작에서 종말로 이어지는 선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시간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가는 것이다.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돌고나면 1년이 가는 것이고, 다시 그 지구가 돈다 할지라도 그 지나간 1

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이며 단회적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이 큰 자랑이었다. 어른들에게도 나이가 많다는 사실 그 자체가 영광이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난다는 일은 기뻐할 일이 못 된다. 나에게 있어서는 늙고 죽고 썩어가는 그 슬픈날을 향해 1년 더 가까이 간 것이다.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고 조금의 타협도 없다. 오늘, 지금, 금년에 하지 못한 일들은 영원히 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후회요, 좌절이요, 실패이다. 그렇지만 또한 절망해서도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판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고후 5:1)

시간은 시작이며 매듭이고 소망이다.

이제 1986년의 매듭이 맺혀져 가고 있다. 매듭은 분명하고 튼튼하게 맺어야 한다. 그것은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무엇을, 어떻게, 왜 살았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대답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물어야 한다. 왜 또 한 해를 살아야 하는가를 그리고나서 1987년 365장의 백지 위에 어떤 족적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답해야 한다. *

사

도

신

경

총

론

VI

평신도를 위한 신앙강좌



5. 창조의 초점은 오직 사람이란 사실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의 창조의 초점은 천사들이나 천체들이나 만물이나 짐승들이 아니고 오직 사람이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6일 동안의 창조의 순서를 보아 알 수 있다.

첫째날은 빛을 내셨고 둘째날은 천지를 구별하셨고 셋째날은 바다와 육지를 구별하셨고 넷째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출현시켰고 다섯째날은 물속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의 발생이고 여섯째날은 육지의 짐승들과 사람의 창조였다.

처음 5일은 마지막 6일을 위한 준비였다. 그것은 끝날에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과정중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사 완성되었다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증거이다.

사람은 만물보다 귀하다. 온 우주는 사람을 위해 지어졌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 43:21에 사람 창조의 목적을 밝히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할 인간이 짐승 곧 뱀과 대화하고 또 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속아서 타락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에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후 제 7일은 안



임 종 만

(목사·북서울교회 시무)

식하였다. 이는 인간을 통해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천사나 천체들이나 죽은 조상이나 짐승등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다.

이스라엘을 보라. 그들의 조상중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 위대한 인물이 있었지만 결코 형상을 만든다든지 초상화를 그려 신으로 숭배한 일은 없고 다만 그들의 업적과 교훈을 글과 말로 보고 듣고 마음 속에 간직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북한은 김일성 동상이 곳곳에 세워져 인민에게 경배를 강요하고 있으며 남한도 홀룡하다는 조상의 초상화 등을 그려 신으로 섬기며 근래는 부산 엄궁국민학교 교정에다가 단군 동상을 세워 아이들에게 절을 시키려다가 엄궁교회 성도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한 일이 일어났다.

사람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으며 천사 귀신도 될 수 없고 짐승도 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중에 최고임을 알고 하나님만 높이며 인간 천사 천체 짐승 그 밖의 것에 굴복하지 말아야겠다.

3.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가?

히 11:6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다.

그렇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자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는 영적효자가 되어야겠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1.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

“전능하시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원문에 「엘로-힘」 곧 「강하고 능한 자」란 뜻이

다. 그러므로 사도들이나 그 밖의 경건한 성도들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라는 고백인 것이다.

돌이켜 보니 기독교 2천년 동안 시대마다 핍박을 받아 왔지만 계속 타오르는 불길처럼 아무리 넘어뜨려도 일어서는 오투기처럼 부흥이 되어 온 것은 교주되신 하나님이 강하고 능하셨기 때문이다.

교법사 가말리엘은 엄감되어 말하기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고 했다(행 5:38,39).

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시다. 대하 16:9에 “여호와와 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라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하였고 빌 4:13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다.

충현교회 당회장 김창언목사는 소년시절부터 예수님을 믿고 은혜롭게 설교함으로 일제의 탄압을 계속받았으며 이로 인한 수고와 영양실조로 폐병이 되어 피를 토하며 고생해 왔다. 70이 된 요즘도 설교도중 혈담을 뱉아내면서 하신다.

그는 천국일군양성, 북한선교, 민족복음화, 새개신교 성전건축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현재 세계 제1의 에베당을 비난 속에 지으면서 말하기를 “씩을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종합병원은 크게 지어도 말이 없고 병든 영혼구원을 위해 에베당을 조금 크게 짓는다고 여찌 그리 말도 많은지...?” 하시면서 도리어 세상의 무지를 탄식하곤 한다.

그러면 그가 불사조처럼 안팎의 고난을 능률하게 견뎌내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시 18:1 곧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란 말씀을 믿고 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육간 강한 자가 되는 것이다. 종이 한장은 찢어지기 쉽지만 벽에 붙으면 아무도 찢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자.

(다음호에 계속)

정년 은퇴하시는 조현명 장로님

우리교회 초창기라 할 1956년 등록하여 집사로, 장로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30여년간의 봉사로 많은 공헌을 하신 조현명 장로님(출판국장)이 12월을 끝으로 시무장로직에서 은퇴하시게 된다. 편집부에서는 12월 14일 오후 조선군 편집위원으로 하여금 은퇴를 앞두신 조현명 장로님과의 대담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대담 : 조 선 근

(장로, 월간충현 편집위원)

— 여전히 정정하신 장로님께서 정년으로 시무장로직에서 은퇴 하신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장로님을 옆에서 모시고 일해 온 사람으로서 펍 서운합니다. 한편 달리 생각해 보면 부럽기도 하구요. 정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일을 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에서 축하드립니다. 요즘은 장로님께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우선 세월이 빠름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두번 정년을 맞게 되는 셈입니다. 일반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이나가요. 아뭏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 아쉬움 등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편 큰 짐 하나를 벗은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 장로님께서서는 자상하시고 준비를 착실히 하시는

분으로 대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장로님의 글에서 다가울 장로정년일을 내다보시며 재수표를 작성해 놓고 앞으로 며칠 남았다는, 말하자면 카운트 다운을 하신다는 대목을 펍 인상깊게 읽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의 말씀이 장로님의 삶처럼 여겨져서 장로님을 더욱 부럽게 만듭니다. 장로님께서 언제부터 우리교회와 인연을 갖게 되시고, 언제 장로장립을 하셨으며, 어느 기관과 부서에서 일해 오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평양 서문외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았고, 1932년 입교했습니다. 우리교회와의 인연이라면 6·25사변 때 부산에서 성도교회에 출석하면서 밤에 배에 가끔 동일교회(충현교회 전신, 당시 김창인 전도사 시무)에 나간 것이 계기가 되어 1956년 상경하고서는 충현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장로장립은 24년 전인 1963년에 했습니다. 교육 부서에서 15년간(유치부·중등부·고등부·청년부) 일한 것이 가장 오래되고, 충현 편집위원 혹은 출판국장으로 11년, 당회 서기 4년, 그리고 남전도회장과 장학위원장을 역임한 것이 전부라고 하겠읍니다.」

— 그런데 오래간의 교회생활에서 가졌던 큰 기쁨이나 보람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속의 은총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부족하지만 세워 주신 장로직의 고귀함을 깨달아 충실히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영광은 하나님께, 칭찬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책임은 스스로 지고”의 신념으로 일하셨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조현명 장로.

마다 기쁨과 보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장로님께서 신앙생활 중에서도 교회에서 일하시는 가운데 아주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또 특별히 기억되는 일화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강릉 비행장설치 통신관계 시설차 출장갔다가 6·25를 만나 석달만에야 가족들과 만나는 수난과정에서 그때 신앙이 큰 힘이 되었던 것이 지금도 뚜렷이 기억됩니다. 그후 극복하기 어려운 일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교회 속에서 충현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장로님께서 보십니까?

[부흥하는 한국교회 속에서 우리교회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성도들이 잘 따라준 것도 물론 들 수 있겠지요.]

— 장로님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로 큰 교회가 된 만큼 충현교회의 사명과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우리교회 5대 당면목표와 함께 병행하여야 할 일이 혹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교회 5대 목표 하나하나가 다 큰 일로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여야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밖에 한가지만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교회는 70년대초에 문서행정에 대한 지침으로 문서관리 관계규정과 그후 공문서보관·보존 관계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런 문서행정에 있어서도 한국교회에 본이 되게 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장로님에 대하여 주위에서는 유우머가 있으시고, 미리 준비하는 데에 철저하시며, 정확을 기하는 데에는 남다른 점이 있다고 하십니다. 장로님께서 어떤 신념과 자세로 일해 오십니까?

[가끔 우스운 소리 한다가나 재미있게 말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한번은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저를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교회 일을 하게 되면서는 “영광은 하나님께, 칭찬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책임은 스스로 지고”의 다짐으로 모든 일에 분명히 하고 바르게 하고 싶어했습니다.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고 문서행정을 철저히 하자는 것도 그런 일념에서였습니다.]

— 장로님께서 아까 토대신앙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장로님 가문의 신앙의 맥은 어떻게 이어져 왔습니까? 3대 장로 가정으로 아는데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가문의 신앙은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던 초기에 증조부께서 신앙을 받아들이신 것이 그대로 계승되어 오늘날은 6대에 걸쳐 신앙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3대 장로란 돌아가신 아버님(조웅천 장로)과 저 그리고



▲1963년 장로장립식이 끝난후 부인(양정백전사)과 함께 구성전 사무실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큰아들(대영 장로, 타교회)을 들어 그렇게 말합니다.]

— 장로님 가족을 더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내 양정백 전사와의 사이에 이남 이녀를 두었는데, 큰사위(하태웅씨)가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합니다. 작은아들 세영 집사와 작은딸 희영 집사(본교회 2부예배반주자)가 우리교회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 장로님께서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좋은 기술을 지니신 장로님께서 직장에서 장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이 있다지요? 살아가는 이야기도 좀 들려 주십시오.

[하루의 생활은 그저 평범합니다. 오래 전이지요. 다행히 전기기사1급, 전기공사기사1급, 유선설비기사1급 자격증을 소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퇴직 후에도 일을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것은 아니고 일에 연판을 맺고 가끔씩 나가서 하는 일들입니다. 아직은 건강문제도 괜찮고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 장로님, 주님과 교회 위해 수고를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장로님, 내년도에 하시교자 하는 일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교회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시간도 좀 있겠으니 뒤에서 기도하는 것과 도서실에 둘러 성경연구 하는 일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우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교회가 잘하는 일을 계속 잘해서 전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정해 놓은 것을 꼭 실천하도록 당부하고 싶습니다.]

— 장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나은 성전건축을 위하여



이정우

(집사·건축본부장)

—스위스—

국경이 가까우니 산들이 나타나고 집들도 스위스 풍이 되어간다. 저녁 늦게 주리히(Zürich)에 도착하여 여행 안내소를 통해 그리스 정교회 앞의 호텔(Eos Hotel)에 투숙하였다.

호반의 도시로서 맑고 수량이 풍부하다. 전차가 운행되고 있었으며 거리는 넓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였다. 강(호수로 연결되는 운하) 옆에 위치한 교회의 첨탑 밑에서 조명을 해주니까 그야말로 그 아름다움이 돋보여 우리교회 새성전 종탑 꼭대기의 십자가에 불비추는 것 때문에 공개 아이디어 모집도 했는데, 커다란 문제 하나가 해결된 느낌이다.

8월 7일에는 이태리의 미라노로 가기 위해 유명한 인터라켄(Interlaken)의 만년설을 구경하며 알프스산을 넘으려던 계획이 일행중 한 명이 계획을 바꾸었으므로 주리히에서 헤어져서 육목사님 부부와 최석주 장로님과 함께 알프스를 넘어 험준한 산골, 긴 터널, 아름다운 호수와 만년설을 보며 잘 담여진 고속도로를 하루종일 달려 역시 호반의 도시인 루가노(Lugano)에 도착하여 언덕 위에 있는 값싸고 분위기좋은 호텔(Nizza Hotel)을 찾을 수 있었다.

이태리 가까운 곳이라서 그런지 밤 늦게까지 광장에 모여서 담소하고 즐기는, 주변의 건물 창가에는 꽃을 잘 가꾸어 놓고 호반을 따라 있는 도로변에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꾸며 놓았는데 어느 큰 호텔 앞 광장에 있는 조각이 인상적이었다. 여기서도 자그마한 교회의 종탑에의 조명은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태리—

8월 8일 아침에 눈을 뜨고 창을 여니 호반의 도시 루가노가 한눈에 들어오고 맑은 공기가 신선하다.

아침 일찍 미라노(Mirano)를 향해 출발한다. 주변의 경관이 좋으니 뒷자리에서 졸 사이가 없다. 호수를 누비고 산골짜기를 접어 코모(Como), 추르(Chur)를 지나서 이태리 국경을 넘어가니 유료도로가 된다.

유럽에서는(이태리 제외) 나라마다 1년에 고속도로비로 독일의 경우 40마르크를 내면 되는데 이태리는 구간마다 받는다.



▲쥘리히 시내 교회당
(맞은편에서 조명되는 야경이 아름다웠다)

북부 이태리는 비옥한 땅이 많고 사람도 남부 이태리에 비하여 부지런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고 한다.

미라노에 도착하여 시내에 진입할 때 육 목사님 설명이 미라노의 유명한 곳으로 레오날도 다빈치 박물관(예수님의 성만찬 원화가 보관된 곳), 성 어거스틴을 감화시킨 감독이 시무한 교회 미라노 대성당(Milano Doumo)을 들수 있는데 성당(Doumo)만 볼수 밖에 없다고 한다.

시간도 없고 또 미라노는 길이 복잡하여(거의 모든 길이 일방통행이므로) 갈 찾기가 어려워 지도를 이용해도 특히 초행자에게는 무척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처음 들어간 막다른 골목에 레오날도 다빈치 박물관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4000리라(1달라 : 1300리라)의 입장료를 내고 예수님의 성만찬 그림 원화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림을 대할 수 있었다.

성만찬 그림은 지금 보수중이어서 그림 절반은

아직 복원되지 않은 채이었다.

그다음 대성당을 찾아가는 길에 교회를 보게 된다. “복 있는 자는 다 보게 된다”고 하셨다는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두 기뻐한다.

미라노 대성당(Milano Doumo)은 아직 우리가 본 고딕식 건축 중에서 진짜 대리석 다운 대리석으로 된 것으로는 처음인 건물로서 근래에 청소가 되어 깨끗하고 맑은 핑크빛 대리석으로 조각한 섬세함, 그 정성스러움에 입이 벌어질만큼 감탄사가 나온다. 지붕에는 소형 대리석 첨탑이 130여개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모두 대리석 성인상이 실물크기로 세워져 있었다.

벽면 기둥들의 구석구석에는 성서에 나오는 장면들과 인물상들이 조각되어 있었고 또 내부 바닥은 여러가지 색깔의 대리석으로 상감하여 문양을 만들었는데 그 아름다움과 정교로움은 그 당시 장인들의 정성의 표현을 보는 것 같았다.

지붕은 동판이나 주석판 대신에 큼직큼직한 대리



▲루가노시와 호수

석판을 잘 다듬어서 입혔다. 이 성당은 이태리 중세 최대의 교회당이며 이나라 후기 고딕을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원래 1385년 비스콘티(Visconti)가 창건하여 1485년까지 100년간 지었으며 1490년 건축가 아메데오(Amedeo)와 돌체 부오노(Dolce Buono) 2명이 개승하여 주로 외부 첨탑 버트레스 등의 조각장식을 담당하여 완성하였는데 서쪽정면 상부는 19세기에, 또 출입구문은 20세기에 완성되었으므로 무려 500년 간이나 걸려서 완성한 결과가 된다.

규모는 동서쪽 148m, 남북축이 87m, 열주 내부 예배당 폭이 60m이며 외부통로 천정고 24m, 예배당 천정은 49.3m, 교차부 8각탑의 천정고는 70m 나 되는 거체이고 내부기둥 높이가 27m, 주두((柱頭)만의 크기가 7m의 규모여서 독일의 쾰른(Köln) 성당 규모에는 못미치지만 이태리에서는 최고급에 속하는 완전한 고딕양식 성당이기도 하다.

지금은 관광객을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성당 내부의 상세를 살살이 살펴 볼 수 있었다.

광장 옆의 간이식당에서 피자도 점심을 하고 베네치아(Venezia)로 가기 위해 미라노 역으로 갔다. 독재자 무솔리니의 작품으로서 섬세한 이태리식 조각보다는 힘의 표현, 대담한 처리와 그 규모에 압도당하였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세련된 마감처리 등은 친근감을 주었다.

오후 4시반 특급열차가 있으나, 육목사님이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2시간 반 정도를 고속도로를 달려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유명한 베로나를 지나 비첸자(Vicenz)의 박상연 목사님 댁에 도착하니 반가이 맞아 주시며 아쉬워 하신다. 베로나의 유명한 오페라 축제(매일 프로가 바뀌는데 그 날은 "아이다" 공연)에의 안내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도착이 조금 늦어져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

금요일이었으므로 그 저녁에 구역 성경공부가 있

는데도 깜박할 정도로 고국의 손님이 반가왔단다.

저녁 식사후에 육목사님 부부는 다시 독일의 비스바덴으로 돌아가시기 위해 피곤을 무릅쓰고 떠나셨다. 약 1200km를 고속도로로 달려가야 주일에베를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3일간의 수고가 참 고맙고 감사하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 감사.

우리에게 무기를 준비하게 하시고 총알까지 공급하신다. 박목사님 댁에도 배터리 충전 설비를 준비하여 두셨으니 말이다.

다음날(8월 9일) 아침에 박목사님 안내로 비첸자에서 약 70km 떨어진 베네치아(Venezia, 베니스)로 간다.

베네치아는 약 120개의 섬을 연결하여 마치 한 육지에 운하를 파낸 것처럼 되어 있다.

섬 사이를 운하로 이용, 큰폭의 섬사이에는 큰배(빠스)가 운행되고 좁은 운하에는 곤도라라는 길고 좁은배(택시라고 부른다)로 통행한다.

본토와는(약 2km) 벽돌 교량을 설치하여 자동차,

기차가 통행하고 바다에 철타를 세워 전력도 공급하였다.

유명한 산 마르코 광장에는 관광객으로 초만원, 별거벗은 사람들이 많이 드인다. 옛날 로마 병정들의 옷차림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차이 없는 이유를 알만하다.

산 마르코 성당(Basilica di San Marco)에 들어가니 금빛나는 대리석으로 장식했고 벽화가 특히 많다. 또 순금판에 조각한 조각품이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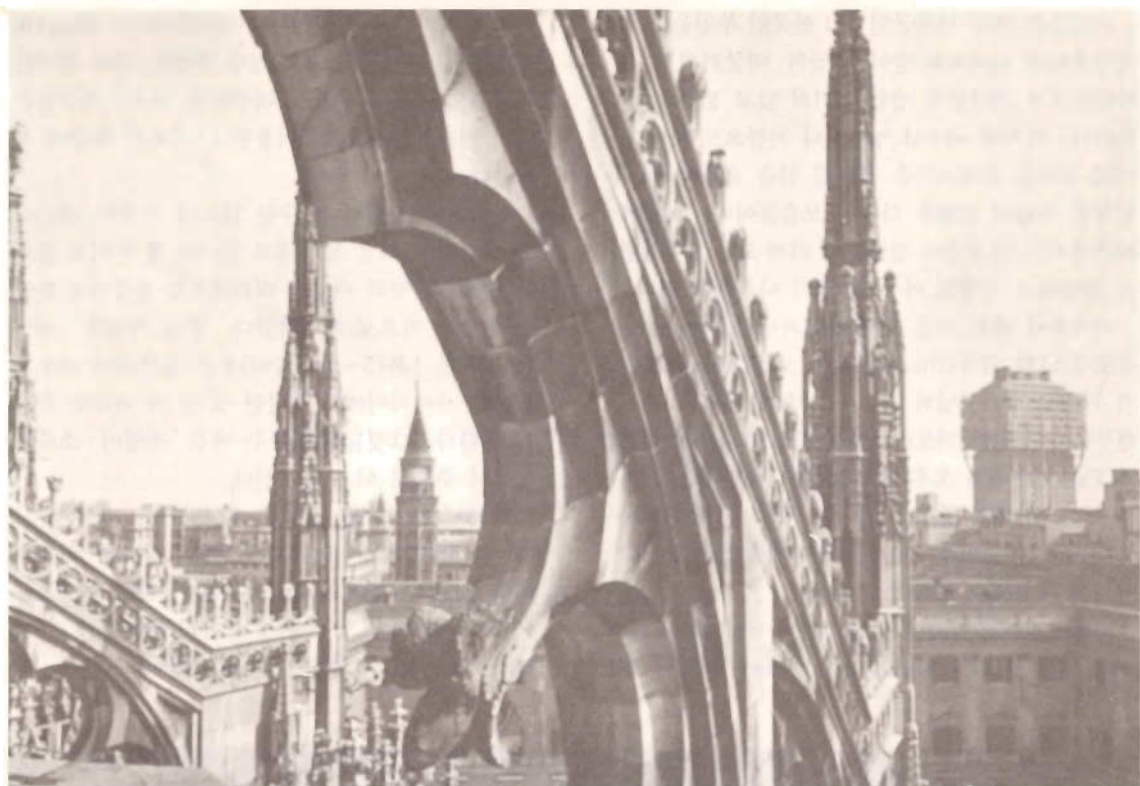
내부 바닥에는 대리석으로 모자이크하여 아름답게 수놓았다. 또 본당 후면의 기둥은 핑크빛의 대리석 기둥인데, 그 뒷면에 형광등을 세워서 이쪽에서 보면 속에서 빛이나는 것처럼 보인다.

베네치아는 매년 겨울철 약 20일간에 걸쳐 1m쯤 바닷물에 잠긴다고 한다.

일행은 세계적으로 유리와 크리스탈 세공으로 유명한 무라노(Murano)섬으로 가서 크리스탈 세공 공정을 보고 우리교회 세성전의 현관이나 로비 천정쯤에 장식했으면 하는 산테리아들을 볼 수 있었



▲미라노 성당
(대리석 조각에 쏟은 정성이 돋보인다)



▲미라노 대성당의 대리석조각 상세

다.

8월 10일. 주일이다. 바쁘게 뛰어야 하는 날이므로 아침 7시쯤 식전에, 박목사님 안내로 비첸자 시내를 본다. 이태리 각지에 있는 도시마다에는 몇 개씩의 성당과 시청, 공회당등 공공 건물들이 있게 마련인데, 거기 마다에는 섬세하게 표현한 대리석 상과 곳곳에 붙어 있는 조각들이 대단한 예술의 수준을 나타내 준다.

마치 찍어낸 것처럼 쉽게 처리했으나 개인집 치마 끝에도 고대와 현대의 조각품이 예술성 깊게 달려 있다.

산꼭대기의 몬테베리코성당(Monte Berico)에 가본다. 주일이므로 천주교인들의 미사는 1시간 마다인데 다른 성당들과는 달리 그 이른 시간인데도 packed 있었으며 매회 만원을 이룬다고 한다. 이 성당은 르네상스시대 흑사병이 만연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갈때 의사이며 예언자이기도 한 신부가 이 산꼭대기에 성당지를 것을 예언하였으나 사람들이 듣지 않다가 흑사병이 계속 창궐하니까 할수 없이 성

당을 지으니 병이 깨끗이 물러갔다는 얘기가 전해진다고 한다. 성당 광장에서 큰길 밑까지 약 500m를 편복도로 만들어 통행인들이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게 한다.

내부의 Dom에는 벽화, 천정화가 아름답고 Dom 가에는 조각을 붙여 놓았다. 또 부속 박물관에는 그 당시에 성만찬을 다른 차원에서 그려놓은 그림도 있고 많은 화석들도 전시되어 있었는데 아주 생생하였다.

주일이면 온 이태리는 상거래가 중단된다. 발각되면 벌금형에 처해진단다. 완화시키려 해도 천주교회의 반대로 완화시킬 수가 없으나 성당 내에서는 주일인데도 기념품, 카드등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오후 2시에 미군부대 내에 있는 비첸자 한인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박상연 목사님은 미국 L. A. 동양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서 이태리에서는 4년째, 선교활동을 하고 계신 분으로 열심히 선교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았다.

교인들은 모두 미국군인들의 한국인 부인들로 국제결혼하여 재배치를 받아 이곳의 미군기지로 온 부인들로서 지난날의 생활은 거의 잊고 밝은 얼굴들이다. 거기에 예수님 영접하니 기쁨으로 차있다. 예배 후에는 교제시간을 갖는데 밝은 표정에 서로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들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약 2년이 걸렸는데 이제 모두 부부생활도 원만하고 가정도 아주 잘 꾸려 나간다고 한다.

예배후에 바로 다음 목적지인 피렌체(Firenze, 플로렌스)와 피사(Pisa)를 거쳐 로마(Rome)로 가기 위해서 박목사님의 전송을 받으며 세계 최초로 해부학을 정립한 파도바 의과대학으로 유명한 파도바(Padova)에서 오후 5시 20분에 출발하는 기차를 탔다. 이태리 중부를 지나는 직행열차보다 피사를 경유하는 로마행 기차를 타면 지중해를 볼 수 있다는 목사님의 권유에 따른다.

260km 떨어진 피렌체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후 피렌체 대성당(STA. Maria del Fiore) 근처의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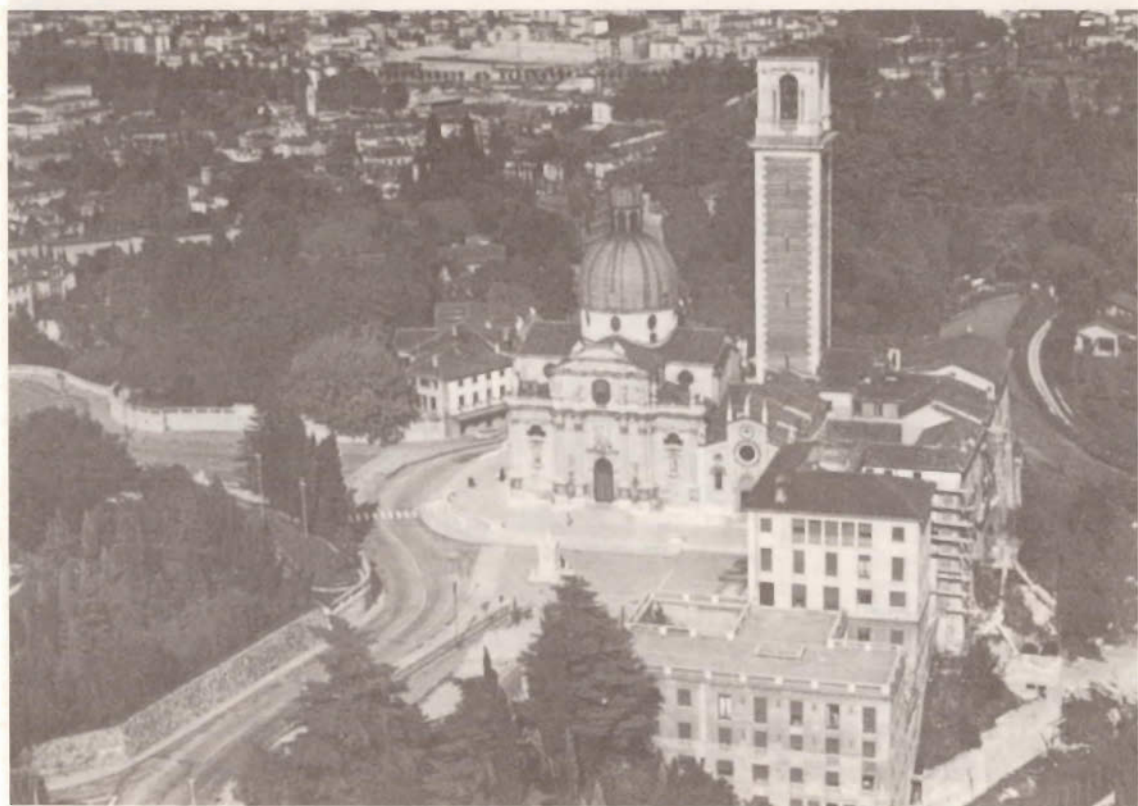
아리 근처의 치아리 비갈로 여관(Chiarie Biggall Hotel)에 여장을 풀고 대성당 주변의 고색 창연한 거리를 돌아보며 관광을 대신한다. 유럽 사람들은 밤의 거리, 광장을 잘 이용한다. 대화의 광장이 시끄럽다.

밤이기에 충분히 볼 수는 없으나 각색의 대리석을 상감하여 벽을 모양내고 입구와 창 주위의 물드는 각색, 각양의 세밀한 대리석으로 상감하여 문양을 만들고 벽으로 처리하였다. 장식 기둥은 새끼뿔 형태를 1본(5~6m 높이)으로 조각하여 세우고 돌아간 사이사이에도 상감한 것 등 돌 다루는 솜씨가 놀랍다. 그것들을 비추는 야간 조명이 조화를 이루어 주므로 더욱 돋보인다.

1296년에 기공된 고딕식 대성당이며 그뒤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1418년에 현상 설계에 의하여 세운 돔은 그 높이가 105m나 된다. 종탑과 청동문(천국의 문)으로 알려진 성 조반니 예배당과 한 무리가 되어 멋진 조화를 이루는 성당이다.



▲산 마르코 광장
(겨울에는 20여일간 바닷물에 침수가 된다)



▲비엔자의 몬테베리코 성당

다음날(8월 11일) 아침에는 새벽에 일어나 우선 유명한 다윗의 상이 있는 광장으로 가서 다윗상과 피렌체 도시 전경을 둘러보고 고딕식 건물이 별로 안 보이므로 몇몇 건물을 주마간산식으로 짧은 시간에 섭렵한다.

9시 40분발 기차로 피사(Pisa)에 도착하니 10시 50분이다. 12시 16분 로마행 직행 열차시간까지의 짧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급히 짐을 맡기고 뛰다시피 택시로 피사의 사원에 도착하여 성당내부와 세례당과 사탑을 탐사하며 VTR 카메라에 기록하기에 바쁜 숨을 몰아쉬며 땀을 뺀다.

세례당(Baptistorum, 1153년)과 사탑(Camp-nile)이 반세기 늦게 병설된 이 사원은 이 세대로 마네스크 양식 건축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중의 하나이다. 1063년에 기공하여 50여년의 공기를 들여 1112년에 준공했으나, 도중에는 여러 번 중단되기도 했으며 정면상부의 섬세한 오픈아케이드가 유명하다.

특히 세례당의 고딕풍은 후기에 개조하여 가미된 수법이다. 사탑은 1174년에 기공하여 1350년에 준공했다 하므로 무려 175년간의 긴 세월을 들여 완성한 셈인데 건축동기는 사라센해적을 팔레르모 해전에서 섬멸시킨 기념으로 지었으며 건축비는 이 승리에서 얻은 3척분의 보화였고 건축목적은 제반 행사집회및 국가적 중대사의 고시 타종용과 천체 관측소용으로 겸용하기 위해서였는데 높이 약 59m, 8층이고 외경은 17m, 최하단 벽두께가 약 4.6m이다.

어느덧 남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 수직 거리가 4.25m가 되었다. 공사 도중에 경사지기 시작한 것을 그대로 완성시켜 나간점이 무모대담하고 불가사의한 일이기도 하다.

최상층의 종실부만은 바로 잡기 위해 거의 수직으로 지어졌다. 바쁘고 바쁜 중에 기념사진 몇 장 찍고 12시 16분 발 로마행 기차에 겨우 오른다.

지중해안을 따라오니 해안의 풍경은 싱싱하고 이



▲피렌체 대성당
(벽의 모자이크 문양이 아름답다)



▲피사 사탑의 기울어진 모습

태리의 소나무는 모두 잘 가꾸어 놓은 분재같이 아름답으며 연속으로 심어져 있는 것이 특이하다.

박목사님의 충고대로 따르기를 잘했다.

이태리 농촌 풍경은 우리나라와 흡사한 것이 많다. 여름이기 때문에 비가 많지 않으나 초목들은 가뭄을 타지 않는 것같이 모두 싱싱해 보인다.

지하가 암반인데 물을 머금은 돌이기 때문에 물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매일 비가 오다시피하나 여름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데 10월만 되면 짙은 안개, 흐린 날씨가 온 유럽을 괴롭힌다.

로마 도착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호에 계속)

새벽송을 돌던 기억속에서



이 두 란

(전도사, 9교구)

해마다 12월이 되면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 그것은 호텔마다, 백화점, 슈퍼마켓, 각종 상점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핑장하게 한 것이다. 더욱 격분케 하는 것은 술집, 카바레, 유흥업소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한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누가 누구에게 축하 하는지 알지 못하는 행동이다.

이것은 축하의 대상인 아기 예수님,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만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가 아닌가 싶다. 나의 유년 시절의 크리스마스가 희미하게 기억난다. 추수 감사절이 지나면 곧 이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했다. 나는 나의 고향인 시골 작은 예배당에 다녔다. 저녁마다 예배당에 가서 노래를 연습하고 연극 준비도 하였다. 나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 이름은 기억에 없고 신선생님 인 것만 기억한다.

신선생님은 까만 치마 저고리를 입고 뒷 머리는 뽀뽀나 처럼 말아 올렸다.

선생님은 내가 예배당 갈 때마다 손 시럽껏구나 하시면서 선생님 두 손으로 나의 두 손을 꼭 쥐고 선생님 입으로 호-호-불어서 내 손을 녹여 주시곤 하셨다. 그 때 신선생님의 자애로운 얼굴과 고마움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 아이들끼리 예배당에 다녔다. 주일 낮에는 예배당 가는 것을 부모님이 말리지 않으셨는데 밤에 나가는 것은 못 가게 하셨다. 어떤 때는 야단도 맞으면서 몰래 가곤 하였다. 어머님이 못 가게 하면 더 가고 싶고 더욱 일찍 가곤 했다.

두 밤만 자면 크리스마스날인데 나이 드신 남자 선생님 한 분이 좋은 목소리로 광고를 하셨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새벽송 갈 때는 작은 아이들은 나오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그 때 열 살 정도 된 것 같다. 언니가 작은 아이들은 오지 말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나를 안테리고 갈려고

해서 나는 울면서 언니가 부엌에 가면 부엌문에서 지키고 화장실 가는 데도 쫓아 가고 자지도 않고 언니만 지키고 있는데 ‘땅그랑’ ‘땅그랑’ 줄로 잡아 당기는 종이 울린다.

새벽송 나갈 사람들 모이려는 중이다. 언니가 가는데 나는 기어코 쫓아 갔다. 어른 교인들과 언니들, 오빠들이 모였다. 내가 제일 꼬마였다. 떡국인지 밥국인지 먹고 초롱등불을 남자 집사님들이 들고 교인 가정마다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기룩한 밤 찬송을 나도 따라 불렀다. 그 날 밤에 하얀 함박눈이 내리는데 머리부터 온 몸이 눈 사람 처럼 되었다. 추운 것도 모르고 마냥 즐겁기만 했다. 어른들이 나를 보고 너 춥지않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다. 나는 춥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쫓아 다녔다.

이쪽 마을을 다 돌고 저쪽 마을로 갈려고 하면 작은 냇물을 건너야만 했다. 나무 다리로 건널려면 한참 돌아야 하고 징검다리(돌다리)로 건너면 가까운 거리다. 나는 돌다리를 건너다가 미끄러져 물에 빠져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친 일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나는 그 때 일을 생각해 본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크리스마스의 뜻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즐기워 한 것 같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 중에는 크리스마스의 뜻이 없이 하나의 명절로 알고 사람들끼리 선물이나 교환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신자가 많지 않는다.

1986년도 크리스마스는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들던 천군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송을 들으면서 인류의 구세주가 나시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인류의 켓전을 두드려 주기를 바란다. *

성탄극에 어린 크리스마스



한 영 숙 권사

나는 평북 철산군 찬면 차령관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차령관 장로교회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셨다.

차령관 교회는 붉은 벽돌 2층 건물로 꽤 큰 교회였다.

평북의 크리스마스는 매우 춥고 눈이 많이 왔다. 그러나 눈에 무릎까지 폭폭 빠지면서 성탄절 축하 예배 공연 연습 가는 것이 즐겁기만 하였다.

구경거리라면 씨커스가 왔을 때와 학교에서 전쟁 활동사진밖에 없었으니 크리스마스 축하의 밤은 참 즐거운 구경 거리였다.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었다.

한달 전부터 열심히 연습을 하였고 크리스마스 전 날 저녁에는 어른, 아이,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교회가 터져 나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여섯살 된 나의 남동생이 출연했던 순서로 네 명의 어린이가 4개국 옷을 입고 4개국어로 노래 부르는 것인데 내 동생이 한복을 입고 한국말로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하고 노래하면 일본 옷을 입은 여자 아이가 나와서 “와다시와 우레시 와다시와 우레시 와다시와 우레시 이썸모 우레시” 하고 중국옷을 입은 남아가 “위창 콰일리 위창 콰일리 위창 콰일리 창창 콰일리” 한다.

마지막으로 양장을 한 여자 아이가 나와 “아이 엠 쏘 해피 아이 엠 쏘 해피 아이 엠 쏘 해피 해피 올드 데이” 하고 다시 다같이 합창을 부르고 들어가면 우리같은 박수와 함께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 때 내가 맡았던 무용은 고요한밤 거룩한밤이었는데 흰 치마 저고리에 흰 치마 또 하나를 머리에 쓰고 천사의 모양을 하고 불을 전부 끄고 촛불을 들고 무용을 했다. 또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 주신 긴 드레스를 입고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를 혼자서 무용을 했을 때에는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다. 합창도 하고 독창도 하고

1인 삼역을 한 셈이다.

또 다른 아이들은 검정 짧은 치마에 빨간 슈타를 입고 머리엔 리본을 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와 탄 일종이 땡땡을 노래와 무용을 하는 노래극을 한다.

성탄절 순서가 끝나면 붉은 옷을 입은 흰 수염의 썬타 할아버지가 저 뒤에서부터 강대 앞으로 붉은 큰 자루를 메고 들어와서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준다. 그때는 진짜 썬타 할아버지가 먼 나라에서 날아와서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믿었다.

정말 천진스럽고 소박하고 즐겁기만 하였다. 25일 새벽에 찬양대원들이 새벽송을 돌 때에는 우리 부모님이 선물을 준비했다가 찬양을 부른이들에게 준다.

나도 좀 커서는 추운줄도 모르고 “고요한밤 거룩한밤” “그 어리신 예수 늘 자리 없어” 부르며 따라다녔다.

8.15 해방을 맞아 처음으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정말 더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를 암송하고 찬양하며 새벽송 돌던 고향의 크리스마스가 눈에 선하다.

그 기쁨도 잠깐 고향에는 공산당이 나오면서 믿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 남으로 남으로 3·8 선을 넘어야만 했다.

지금 그곳엔 기쁨은 사라졌고,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불쌍하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도 어서 속히 크리스마스 축하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주시옵소서.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희주
(안수집사)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몇 가지를 머리에 떠올릴 수 있다. 산타의 이야기, 사랑의 선물 주고 받음, 친구들이 즐겨 모이는 따뜻한 파티, 눈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귀가 길, 거리의 바쁜 길들, 성탄 트리와 카드, 성탄 촛불을 밝히며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던 일 등...

유독 우리 세대에는 크리스마스에 대해, 다른 세대와는 달리 기억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6.25 전후 나라가 황폐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유년기를 보낸 우리들은 '성탄절' 하면 일년 중 가장 어두운 달에 인류에게 기쁨과 빛을 전해 준 날로 생각되었다.

그 당시 어린이였던 우리들은 쓸쓸하고 추웠던 계절을 밝게 해 주는 복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다. 물론 어른들도 우리의 기쁨에 동참했다.

그림 전시회, 촛극 발표회와 문학행사 그리고 성탄 축하예배 모두가 마치 이 날을 기다린듯이 행하여졌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 때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 평화로다'로 시작되는 유치부 어린이의 인사말에 이어 크리스마스 찬양과, 아기 예수 탄생, 동방박사 등 학생들의 촛극이 있었다. 그때 춥고 배고프기만 했던 우리들은 교회안의 난로 옆에 하루 종일 붙어앉아 손발을 녹이며 떡과 빵을 받아 먹기도 했고, 잘 만들어진 성탄 트리에 눈처럼 붙어있는 솜뭉치, 오색영롱한 구슬 장식, 꿈나라의 별처럼 반짝이는 꼬마전구들 그리고 왠지 나에게 천사를 연상 시키던 그 촛불들을 볼 때 마다 그 거룩하고 신비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자신은 마냥 들떠 있었지만 했다. 또, 중·고등학생 시절의 성탄절 때는 찬바람이 뽀뽀 몰아치는 새벽, 가쁜 숨은 연신 하얀 입김을 몰아 뿜고, 손끝과 볼은 어느새 얼어 발갛게 물 들면서도

열심히 새벽송을 돌던일, 교회 친구들과 함께 성탄 트리를 만들던 일, 이 모두가 유년 시절의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해 주는 것들이다.

그때 겨울만 되면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고 성탄절의 의미도 잘 모르고 마냥 친구들과 쫓아다니며 웃고 찬송가를 부르며 그저 두손 맞잡고 기도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생각하면 철 없던 어린 시절에 눈 맞은 강아지마냥 세월을 보냈던 것이라고 느껴진다. 그래도 고등학교 시절에는 조금 성숙한 탓인지 크리스마스가 되면 즐거우면서도 그렇게 마냥 들떠 있지는 않았었다. 성탄절의 의미와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등을 나름대로 꼼꼼히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왜 그렇게도 우리 주위에는 도와줘야 할, 가난하고 불쌍한, 어려운 이웃이 많은가였다. 어렸을 때는 즐겁기만 하던 크리스마스가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고 점점 성숙해 가면서 나에게 무거운 중압감을 주기도 했다. 왠지 일종의 의무감, 자책감이 들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열심히 나갔다. 전보다 더욱 자세히 성경의 의미를 알아보게도 됐다.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심,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요 인간존엄의 기록이기도 하다. 크리스마스는 그 근본에 있어서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에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전통은 천박한 자존심에서가 아니라 그 일을 외면하고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종소리와 더불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우리가 누굴 도와 줘야 할까. 어떻게 도움을 베풀어야 할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

“성탄절의 현대적 의의”



조 영 길

(목사 · 교육위원장 · 6 교구담당)

서론

해마다 우리가 느끼는 일이지만 성탄계절이 다가오면 왠지 기뻐해야만 할 우리 마음이 오히려 무거워지고 답답하여지는 것이 없지 않다. 그것은 성탄절의 본래적이며 원색적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속화되어졌기 때문이다.

해마다 그것은 빠른 속도로 더욱 심화되어져 가는 것 같다. 이와같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적인 사명감을 재인식하고 성탄절을 바로잡아 나가야겠다. 이같은 입장에서 성탄절의 현대적인 의의(意義)를 살펴보는 것은 큰 뜻이 있다고 본다. 좁은 지면이지만 먼저 성탄절의 부정적인 입장을 살펴 본 후에 성탄절의 바른 뜻을 찾아 보려고 한다.

본론

1. 12월 25일 성탄절 문제:

성경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날자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

나 예수님의 초림(탄생)과 재림에 대하여서는 도무지 그 날이 언제인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12월 25일이 성탄절이란 것은 성경에서 전연 그 근거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징글벨, 화이트 크리스마스와 같은 크리스마스 캐롤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털모자 때문에 눈오고 추운 계절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게 되었는데는 모르겠다.

6세기의 로마의 신학자 디오니시우스(Dionysius Exiguus, 533)가 로마 기원 753년을 주전 1년으로 제정하고, 1월 1일에서 12월 31일에 이르는 날과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고정하는 월력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같은 디오니시우스의 월력이 그후 약 5세기를 거쳐 유럽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채용된 바 되었고 서반아는 14세기 말에 와서야 그것을 채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의 계속적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여 디오니시우스의 월력은 최소한 4년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던 것이다(석학 윌럼 램세이(Sir W. Ramsay)는 호적관계를 연구하고 성탄의 년대를 주전 6년이라고 하였고, 맥킨레이(Mackinlay)는 별을 연구하고 성탄년대를 주전 8년이란 책을 펴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오늘의 서기 년대에서 4년을 더하여 주어야만 하고, 성탄절의 정확한 날자는 아직 불확실하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킨 것은 2세기경부터였고 6세기에 와서 앞에서 말한대로 디오니시우스가 확정한 것인데 그 근거는 알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5세기 이전부터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관례도 있었는데 이것은 동방 교회가 그랬고 서방교회는 12월 25일로 지켰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에 분명히 성탄일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날자보다는 그 탄생 사건자체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이다.

2. 성탄절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

이것은 성탄절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다. 오늘 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들은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대체로 오늘의 세상사람

들이 알고 있는 성탄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본다.

(1) 년말의 이정표로

한 해가 다 지나가는 년말의 이정표(里程表) 정도로 알고 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벌써 년말이 되었구나, 또 한해가 다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2) 망년회 송년파티로

성탄절이 오면 직장 동료끼리, 학교 친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심지어는 계원들끼리라도 먹고 마시고 즐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고 준비한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먹고 마시는 장소가 성시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명동거리는 인파로 넘실거리고 강남 신사동 사거리의 주변에는 불야성이 된다.

(3)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

성탄절이 오면 제일 바빠지는 일손이 있다. 그것은 우체국과 진화국 직원들이요 집배원들의 손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성탄카드와 선물의 소포들 때문이다. 성탄절에는 누구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라고 적힌 카드 한장쯤을 받지 못하면 현대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카드 장사들만이 매뚜기 유월 한철이 된다.

“○○손”이란 크리스마스 카드회사 사장이 다른 사업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크리스마스 카드에 손을 댄 후 몇년 사이에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4) 징글벨, 루돌프 사슴코의 캐롤소리

TV채널을 돌리든지 라디오를 켜든지 나오는 멜로디는 그 때쯤은 모두가 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다. 그 뿐인가? 거리마다 전파상마다 흘러 나온다. 이 같은 현상은 결코 이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때문은 아니다. 서양문물의 밀려오는 힘이고 그 영향일 뿐이다.

(5) 백화점과 호텔에 먼지

이 땅위에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알리는 선지자의 역할은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갖가지 쇼핑코너에서 먼저 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교회의 것과는 비길 바가 아니다.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가는 삼척 동자라도 아는 터이다.

(6) 공휴일, 예수생일로

성탄절은 고작 예수생일, 예수탄일로 알뿐이고 공휴일로 더욱 기뻐한다. 그러므로 세상사람들은 공휴일이 되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생각이라도 가지는지 모르겠다. 서부전선의 애기봉의 철탑이나 시청앞의 트리는 12월 25일과 사월초과일에 십자가와 연등이 교차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와같은 세인들의 성탄절관은 날이 갈수록 더하여만 간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눈을 더욱 크게 떠야만 될 것이다.

3. 성탄절의 본질적인 의미 :

성경적이고도 올바른 성탄절의 뜻은 무엇인가?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1) 인카네이션(성육)

성탄절은 바로 인카네이션(Incarnation:化肉)사건이다. 하나님이 천히 사람이 되시어 인간세상에 오신 날이다. 그러므로 따지고보면 성탄절보다 더 귀하고 복된 탄일은 아주 없다. 어떤 임금님과 왕의 생일보다도 더 귀하고 기쁜 탄일이다.

(2) BC와 AD, 역사의 주인공

인류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기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탄일을 두고 있다. 비 씨(B. C. Before Christ, 주전)와 에이 디(A. D. Anno Domini, 주후.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해라는 라틴말에서 온 것이다)가 그것이다. 이와같이 인류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다. 그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제 조만간에 그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난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생애와 무관한 어떠한 개인의 역사나 사회와 국가의 역사는 참 의미가 없는 것이다.

(3) 십자가의 사건

성탄의 목적과 중심적인 뜻은 바로 십자가 사건과 이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리(교량)를 놓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인류의 불행과 죽음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해 마다의 성탄절은 피상적으로 만날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만나야 하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

(4) 박사들과 천군들 같이

성경에 첫번째의 성탄절이 됐을 때 동방의 박사들과 하늘의 천군천사들이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였는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 하였고 찬송하여 온 지상에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던 것이다. 오늘에 와서도 그와같이 해야 한다.

(5) 마라나타

성탄절은 언제나 마라나타(maranatha, 우리주여 오시옵소서! 의 아람어, 계 22:20)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이 말세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정신이다. 재림이 없는 초림은 완전한 구원역사의 승리가 되지 못한다. 초림(성탄)에 이어 재림이 성취되어질 때에 비로소 완전한 승리의 종결이 된다.

마라나타는 초대교회의 소망이었고 성도들의 인

사말이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소리만 들리고 마라나타의 소리는 전연 들리지 않으니 어떻게 된 것인지 답답하다. 오매불망으로 우리는 마라나타의 생활화가 시급함을 깨달을 진저!...

결언

1986년 금년에도 어김없이 우리앞에 성탄절은 찾아 왔다. 오 거룩한 성탄절이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탄절의 자연보호와 평화운동에 나서지 않으면 아니되겠다.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인류들에게 마지막 굿 뉴스와 톱 뉴스는 참다운 메리 크리스마스일 것이다.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알리고 전파하는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기도한다. *

독자에게서 온 편지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매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세월의 수레는 시간이라는 병차를 타고 선뜻 우리를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문 앞에 내려 놓았기에 아쉬움과 두렵고 떨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 저 너머에는 작으나마 자위가 손흔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충현교회에서 재계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러했고, 또한 재계 귀교회와의 교재를 허락하여 주신 베풀어 감사가 또한 그랬습니다. 여러가지로 자원해주신 성원에 힘입어 저희 직장 신우회 또한 많은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정성스레 보내주신 "충현"지를 받아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교재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변 치안을 담당하는 지사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널리 읽혀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유익한 보고가 되며,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 및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요즘 신약성경 로마서 강해사와 주석서를 탐독하며, 우리 안에서 비밀히 역사하시는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을 열심히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나는대로 서점에 들러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집을 구입해 보는 가운데 여러 권이 책상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긴 시골인 관계로 가까운 춘천이나 서울엘 가야 사서 볼 수 있기에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만 그러나 감사할 뿐입니다.

귀교회에 발간되는 문고판 김창인 목사의 말씀씨리즈도 저희 신우회 교재로 사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문턱에서 귀교회로서도 치러야 할 행사가 많으시리라 생각되어지는군요.

참! 인사를 잊을뻔 했습니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의 출판감사예배를 화보로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직장에 각 사무실에도 충현지의 매달린 부피가 늘어남을 보고 감사 거듭 드립니다.

아무쯁록, 귀교회에서 금년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 되고 결실로 열매를 간구드리며, 아울러 신년에 하시고자 하는 계획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충만케 되기를 염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86. 12. 6.

화천에서 양 회형 드림

참된 선물



김 연 이
(전도사·유년부 지도)

1년 12달 365일을 가족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 가는 중 특히 가족들의 생일을 당하면 무엇을 선물할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다.

무에서 존재하게 된 실존에 대한 정탄과 그 날에 생명을 부여 받았기에 우리는 생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조출한 생일상을 차려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가족으로 영접해 주신 그 분이 오신 탄일을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으며 존귀히 여기지 않았는가?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생일 선물로 드렸는데 나는 무엇을 드릴까?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내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친구의 집에서 열리는 생일 파티에 초청을 받았다. 마침 시장하던 터이라 생일상에 차려질 음식들이 눈 앞에 어른거렸다. 각종 전유어에 잡채, 남지 볶음, 새콤 달콤한 도라지 생채에 푸른색 하얀색의 나물 무침, 금박지에 싸여진 갈비찜에 새콤한 초고추장에 찍어먹을 도미 민어회, 밥알이 동동 뜨는 식혜에 바나나 오렌지 등의 각종 후식들...

뇌의 상상은 금방 입으로 전달되어 어느새 군침이 돌아나오는 것을 꿀꺽꿀꺽 삼키며 그 맥에 도착을 하였다. 손님들은 안방으로 안내되었고 잘 차려진 음식은 금방 눈을 환하게 하였다. 송장에게도 구미를 돋구어 줄만큼 온갖 산해진미로 가득 차 있었다.

생일 선물이 주인에게 전달되고 박수 소리와 함께 손님들은 교자상으로 둘러 자리를 잡았다. 이제 막 술갈을 들고 그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려는 순간 고개를 들고 보니 안방 높이 마려된 벽장에서 번쩍 번쩍 빛나는 황금 부처가 한 손을 쳐든 채 내려다 보고 있었다. 순간 비위가 각 상하며 식욕이 짝 사

라져 버렸다. 어떻게 이 자리를 빠져 나갈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그는 일른 전화기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 번호라도 마구 돌렸다. 수화자도 없는 빈 전화기를 들고 “어보세요, 아, 김사장님이십니까? 아이구 내가 그만 약속을 깜빡 잊고 있었읍니다. 이제야 기억이 나서 전화를 드렸읍니다. 지금 곧 가겠으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는 일어나서 나오니 주인과 다른 손님들이 아무리 바빠도 차린 음식 잠깐이라도 들고 가라고 만류하는 것을 약속시간이 지체되어 잠시라도 머물 수가 없노라고 하면서 정중히 사과하고 그 자리를 빠져 나왔다. 진수성찬을 놓친 식욕은 금방 고개를 들었고 그는 혼자 허름한 하류식당에 들어가 장국밥을 시켜놓고 “하나님, 우상 앞에 차린 진수성찬 보다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이 장국밥이 일미입니다” 하고 맛있게 먹었노라고 하였다.

당시에 그는 신앙이 그리 성숙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식욕은 왕성하던 때라 유혹을 잘도 이긴 그에게 박수를 보내었다.

고린도 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고 또 이 음식들이 우상앞에 바쳐진 제물도 아니었기에 그냥 눈 딱 감고 먹어도 무방하였으려만 우상의 제물에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식욕을 과감히 물리친 기개를 보면서 기뻐했었다.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쳐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나 우리는 평소애 우상 앞에 꿇지 않는 성결과 거룩한 우리 자신을 바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생각해 본다. 황금우상, 명예우상, 권세우상들을 깨쳐버리고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리지 않는 삶 자체를 드리는 것이 참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삶 전체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 영 하 (청년부 회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왜 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고 그래서 ‘허무’라는 단어와 친밀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나서 나의 삶은 확실해졌으며 내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었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 보았다.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나는 신앙에 있어서조차 확실한 것을 원했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외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것이기를 바랐다.

또한 세상에서 살았을 때의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 그대로 남아, 신앙적으로 큰 자가 되고자 했다.

그래서, 헌신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면 선교사나 목사를 생각했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진 일을 할 때에만 기쁨이 있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간들은 의미를 찾지 못했고 다시 ‘허무’라는 단어로 내게 다가왔다.

나는 나의 신앙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나 있음을 깨달았다. 나의 삶 전체가 주님과 연결되어져야만 하며, 매 순간의 삶이 산 제사로서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예배, Q.T(경건의 시간), 커다란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청소, 직장일, 작은일까지도 하나님의 일이었다. 문제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임하는 자세이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별하고 산다. 교회의 일, 전도 등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외의 직장생활 가정생활은 나의 일, 세상 일이 되어지지는 않았는지.

그것들이 나의 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좌송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사실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것은 합리화이다.

자신의 생존을 위한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소리가 들리지만 나는 그것을 강하게 뿌리치고 “그러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인가?” 하는 반문을 해 보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일들(흔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여겨지는)도 주님의 일이며, 그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할 때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나는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이며, 작은 일에 있어서 순교하는 것이 커다란 순교 못지 않게 귀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나의 삶 전체를 의미있게 하시고 값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제는 가족들을 위해 일하는 것도 의미 있어졌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또한, 이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갈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받으신 이는 하나님(천사였지만)이었음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성경공부도 하고 전도도 했지만 이웃을 대하는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 멀리 또는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대할 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다.

불신자인 가족들에게도 크리스찬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잘 해야 한다는 정도이었지 그들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마 25:35-40을 통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하셨고 요일 4:20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고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형제 사랑,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이웃들을 대접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주님께 하듯이 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작은 일까지도 주님의 일이며,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다짐해 보았다.*

학교에서의 승리생활

최 현 주
(9 교구성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순수함을 지키겠다는 의지에서 정직하고자 했다. 그러나 상황은 심각한 정도로 변화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시험지나 책을 보지 않는 나의 행동이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보였다. 또한 친구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서 시험장을 빨리 빠져 나왔다.

병원들을 거닐면서 생각에 잠겼다.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였으나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쟁심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나를 초라한 율법주의자로 만들어 버렸다. 양심을 속이는 친구들보다 나는 좀 나은 자가 아닐까 하는 영적 교만과 피해의식이 나에게서 자유함을 빼앗고 더 큰 갈등을 갖게 하였다.

껍질만 남은 나의 행동을 주님은 무어라 하실까?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교만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껍질만 남은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자기를 못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 상쾌한 봄바람처럼 다가오는 주님의 인격에 압도되어 당신을 닮기 원한다는 기도를 드렸다.

어제 저녁에 그 친구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부활절 계란과 카드가 생각났다. 친구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거리낌 때문인지, 나의 구별된 행동에 대한 비난인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색하고 딱딱했다. 나는 뒤에 감춰진 계란과 카드를 건네 주면서 “내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하고 말을 건넸다. 친구들은 놀라와하면서 “시험준비하느라 바빴을텐데 언제 이런 것을 준비했니” “잠깐 기다려

나도 먹을 것을 사올게” “우리 함께 이야기하자” 어색했던 분위기는 부활절 계란으로 녹아내리고 어느새 그들과 둥글게 앉아 있었다.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이던 친구들이 중학 시절 학교에서 부활절 예배를 보고 계란도 받은 이야기를 시작했고 언제인가 내가 본 교회와 부활절에 받은 인상을 이야기하였다. 자연스럽게 화제는 예수님께 집중되었고 주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게 되었다.

부활의 주님이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였듯이 어색한 관계에서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주셨다. 또한 영혼의 황무지인줄로만 알았던 친구들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게 하셨다.

봄바람이 차가운 대지를 녹이고 새 생명의 싹을 내놓듯, 주님의 인격이 새 영혼에 바람처럼 나의 옛 모습을 녹이시고 선으로 승리하게 하시길 기대한다. *

피곤에 쫓기는 주일성수

김 재 경
(고등부 교사)

피곤은 육체적·정신적인 인간의 한계상황을 나타내 준다.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자신도 육체적 피곤을 느끼시고 쉬시는 모습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일 하루를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정말 신나는 날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쉬는 날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더 피곤해 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안식(쉬)의 기원을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를 끝내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에게서 찾는

다. 이것은 안식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하 나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 오는 쉼의 바른 의미를 알 때 우리는 참다운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고 경배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주일이 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주일의 교회생활에서는 기쁘고 즐거운 안식의 의미보다 왠지 피곤하다고 하는 피해 의식이 깊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문제는 특히 교회의 여러 봉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신앙의 성숙이라는 유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정신적 피로 때문에 지속적인 봉사로 섬기는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또, 습관적인 봉사의 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인의 도리라고 자신을 위로하지만 이로도 참다운 안식의 맛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피곤에 쫓기면서 겨우겨우 지탱하는 주

일성수」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경우도 고등부 교사, 청년부 임원, 스텐으로 봉사를 하고 있어서 주일 아침 9시부터 늦게는 저녁 7~8시까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려 하면 육체적·정신적으로 피곤하여 주일의 바른 의미조차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덕이 되지 못한 모습으로 자주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이런 경우의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교회 생활에서의 봉사의 바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족적인 봉사의 기회를 무리하게 찾게 된 것에 기인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모든 봉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포괄적 전체를 무리하게 자신에게 적용하여 신앙의 성숙과 그에 따른 봉사의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는 자기 만족적·자기 중심적인 신앙태도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의 교회 봉사에 대하여 좀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교회를 섬기면서 주일의 바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해 본다.*

김창인목사 저서목록

설교집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400면	5,000원
· 칭찬 듣는 교회	423면	5,000원
· 절기 설교집	456면	5,800원
· 시가서 설교집	386면	4,600원
· 복음서 설교집	378면	4,800원
· 예식과 설교	516면	6,000원
· 이사야 강해(1)	504면	6,000원
· 이사야 강해(2)	398면	5,000원
· 바울서신 설교집	426면	5,000원

직분자 교육용 교재

·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군	205면	2,200원
-------------------	------	--------

· 예수님의 좋은 일군	196면	2,300원
--------------	------	--------

평신도를 위한 말씀시리즈

· 교회란 무엇인가	87면	700원
· 서로 사랑하자	70면	700원
· 성도의 시험	70면	700원
· 선교란 무엇인가	68면	700원
· 성도의 가정	87면	700원

근간 발행예정

- 이사야 강해(3)
- 이사야 강해(4)

“아빠”

황 선 미

(초등부 · 4-2)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이 없는 것도 다 있는 아주 화목한 가족이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아빠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
나는 이것이 걱정이 되어 매일밤 잠들기 전에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가엾은 우리 아빠 하루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드려도 아빠께서는 점점 나아지기는 하지만 교회 나간다는 말씀은 안하신다.
우리 가족의 소망은 아빠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가족의 애타는 바람을 하나님께서 빨리 알아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십일조”

이 민 재

(초등부 · 4-18)

우리집 가족은 모두 십일조를 드린다. 그러나 나는 십일조를 드리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넉넉한 돈이 없기 때문이다. 형들은 연습장이나 학습지 그리고 버스표를 사고 조금씩 돈을 남겨 모아서 많은 돈이 생긴다.
그러나 나는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 자 한 개 사고나면 남은 돈이 없다. 그러면 십일조를 내지 못하고 만다. 그리고 언제나 나는 막내라 조금 받고 형은 많이 받기 때문에 형들이 몇 백 원씩 낼때 나는 몇 십 원밖에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저도 십일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나면 마음이 후련해진다.
나도 꼭 십일조를 낼 수 있는 아이가 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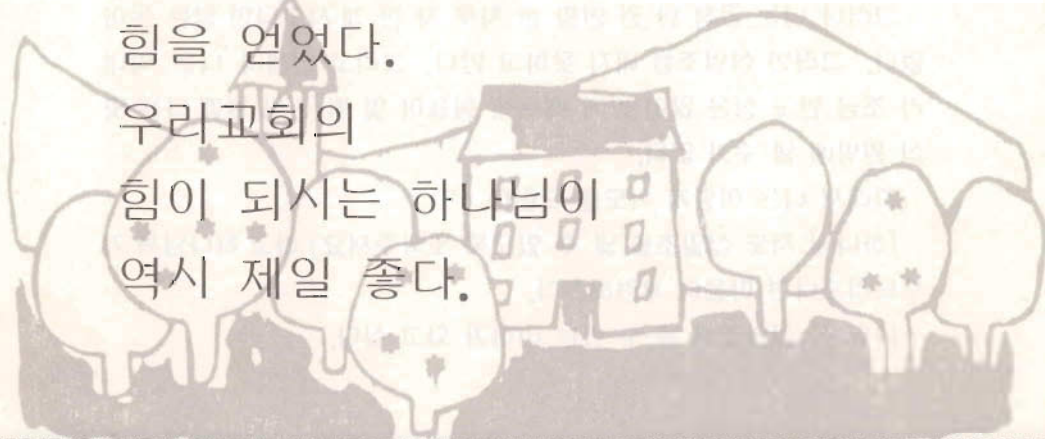
“ 힘이 되시는 하나님 ”

김 성 우
(초등부 · 3-12)

역삼동 꼭대기에
솟아있는 우리교회 종탑
1차 2차 아무리 지어도 1
아직도 다 못지은 우리교회

그러나 3차 공사 때
종탑이 올라갈 때
노아에게 하신 약속처럼
무지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었다.
우리교회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역시 제일 좋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비결

남 창 우

(감도사·초등부 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나 그 날로부터 수지 맞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수지가 어디 있을까, 아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수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날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가지신 절대 최고의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그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같은 절대 최고의 복은 그 날로부터 법적으로는 완전히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여하에 따라 상속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축복의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우리의 가슴은 왜 이렇게 갑갑하고 답답하긴 할까,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고통과 실망은 왜 끊임없이 찾아드는 것일까, 내가 지은 죄 때문일까, 아직 회개치 못한 내 잘못이 있기 때문인가, 내 주변의 이러한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은가, 도대체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로서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수지 맞는다고 떠들어대던 그 말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런 회의와 갈등을 누구라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라. 한낱 기복적인 신앙으로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

럼 수지맞았다고 하며 축복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엔 더 큰 고민과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수지맞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장사하는 사람이 시장 한 복판에서 “수지맞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또 다른 성경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구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본서는 성경을 통하여 성도가 되었다는 것,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비결을 제시하고 있다.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비결은 특정한 사람이 경험한 특수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본서가 제시한 비결은 그렇지 않다. 여기 제시된 비결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으로 실증되었던 비결이다. 13개의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각 비결마다 성경의 어느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어서 누구나 안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소망 속에서 받아 들일 수 있다. 일독을 통하여 누구라도 수지 맞을 수 있는 이일에 놀라 감격하고 또 그 감격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

저자 : 존 헌터 역자 : 권혁봉

발행 : 생명의 말씀사 정가 : 1,800원.



교회소식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
께서 기독교 지도자협
의회 회장을 맡으시
다



김창인 목사님께서 기독교지도
자협의회 회장을 맡으시므로 성
도들의 기도가 더욱 요청된다. 목
사님은 현재 성서공회 이사장, 북
한선교원 이사장, 86·88 성회 총
재, 복음주의협의회 고문직을 맡
고 계신다.

■장로 피택

11월 23일(주) 장로 선거결과
박영식집사 김광남집사 손경수집
사 최명환집사 김재명집사 이종
국집사 김동삼집사 노문환집사 윤
성철집사 이종석집사 이상 10분
이 피택되었다.

■교사단기 수련회

교육위원회에서는 11월 1일(토)
교사 단기 수련회를 교사 328명
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관 307호
에서 실시하였다.

주교교사의 자질향상과 신앙성
숙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동 수
련회에서 강사로 초빙된 신세원
목사는 '균형된 신앙생활' '홍선
기목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
람'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추수감사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난 11월
16일(주) 5부에 걸쳐드리고 저녁
예배시에는 유치부 주최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유치부 어린
아이들의 특순이 있었다.

■87년도 임직후보자

교육훈련 수료식

87년도 임직후보자 교육훈련 수
료식이 지난 11월 19일(수) 저녁
예배시에 거행되었다. 이날 권사
54명 남집사 68명 여집사 121명
권찰 123명이 10주간의 교육을
끝내고 수료하였다.

■고3을 위한 기도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고등학교 3
학년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11월
9일(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507호실(고등부집회실)에서 가졌
다. 이날 강사는 조영길목사였다.

■산돌 음악회

직장전도 교육부에서는 11월 16
일(주) 오후 2시 교육관 407호실
에서 제4회 산돌음악회를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교사양성부, 주간성경공부 수료식

교사양성부 제 25기 수료식이
12월 7일(주) 거행되었으며 수료
대상자는 30명이다.

또 주간 성경공부 각반 수료식
이 11월 하순경 반별로 가졌으며
수료 대상자 수 및 학과목은 다
음과 같다.

- 화요일 낮반(누가복음) 33명
(강사: 김장근목사)
- 화요일 밤반(스가랴예언) 70명
(강사: 김희보목사)
- 수요일 낮반(소요리문답) 22명
(강사: 윤태곤목사)
- 목요일 낮반(히브리서) 70명
(강사: 윤형철목사)
- 목요일 밤반(여호수아) 29명
(강사: 조영길목사)
- 토요일 낮반(사도신경, 십계명)
43명(강사: 임종만목사)

■87년도 제직및 구역권찰 임명

구역권찰회는 87년도 임직자를

선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아 11월 30일(주) 4부 예배후에 임명식을 가졌다. 86년도보다 약 3%가 증가한 87년도 임직자는 권사 492명 남집사 609명 여집사 1074명 권찰 566명 명예권사 54명 명예직권사 51명 명예집사 33명 명예직집사 118명등 모두 2997명이다.

■ 농어촌 교역자 초청훈련

전도위원회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교역자들을 11월 3일(월)~4일(화) 충현기도원에 초청하여 교역자 훈련을 가졌다. 이날 강사로는 이성근목사와 이양우목사였으며 강의후 자립을 앞당길 수 있는 서로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 참가대상 교회는 지교회 지원교회 위탁교회 등 21교회가 참가하였다.

■ 70인 전도요원 8기 수료식

전도위원회에서는 전교인을 전도요원화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70인 전도요원 제8기생 수료식을 11월 13일(목)오후 2시에 당회실에서 가졌다. 이날 8기 수료자 수는 47명이었다.

■ 군 입대자 환송예배

11월 12일 군 입대자를 위한 환송예배가 11월 12일(수) 저녁 예배시 있었다. 입대자는 박태진 박현진 이준성이다.

■ 86년도 의료전도단 총회

의료전도단 정기총회가 11월 9일(주) 오후 1시 30분 의료전도단실에서 있었다. 총회결과 회장에 이종석집사(피택장로)로 유임되었으며 전임원진도 그대로 유임되었다.

금년도는 사무실을 선교관 401호에 정하고 3월부터 전교인 의료상담을 실시한 바 내과 및 외과

등 여러 부분에서 진료와 상담을 하였으며 그 숫자는 550 여명에 달하였다.

■ 북한 선교원 경북지회조직

경북지역을 복음화 하기위한 대성회가 11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구미 제일 교회당에서 있었다.

삼일째 수요일저녁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진정한 참 자유란(요 8:31~38) 무엇이며 참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며 누리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증거하였으며 예배후 경북지회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 복음성가 경연대회

12월 6일(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북한선교원 주최로 제1회 전국 신학대학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열렸다. 예선을 통과한 정선된 11개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겨루었던 이번 대회에서 대상은 목원대학, 금상은 한국어린이 선교신학교, 은상은 호서대학, 동상은 총회신학(방배), 순복음신학이 차지하였다.

■ 87년도 주일학교 교사 임명식

교회는 12월 14일(주) 4부 예배후에 87년도에 봉사할 주일학교 교사 임명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받은 교사 총수는 692명이며 부서별 수는 다음과 같다.

영 아 부:41명	유 치 부:64명
유 년 부:70명	초 등 부:74명
소 년 부:73명	중 등 부:78명
고 등 부:55명	대 학 부:18명
청 년 부: 7명	장년 2부:29명
장년 1부:47명	소 망 부:41명
직 전 부:27명	새가정부:17명
새신자부:31명	세 례 부:20명

■ 새로 협동교역자 두분 청빙

87년도 청년부와 대학부 담당 교역자로 일할 김성수목사와 박희석전도사가 새로 오셨다. 청년부를 지도하게 될 김성수목사는 현재 합동신학원 구약학 교수이며 대학부를 지도하게 될 박희석전도사는 현재 총신대학 교회사 교수이다.

■ 지하철 역삼역

성탄축하예배
충현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지하철 역삼역 86년 성탄추리 점등식 및 성탄축하예배를 전직원과 한나 여전도회 임원들과 함께 역 광장에서 드렸다.

1부예배에 이어 점등식 및 다과회로 주변 역장들과 30여명이 한나 지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선물과 다과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며 광장에 추리 설치로 오고 가는 사람마다 구주성탄의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였다.

■ 기증

본 교회 성도 이기순씨는 소유하고 있었던 가옥 한 채(시가: 약 1억원)와 자신의 퇴직금 및 승용차 한 대를 교회 앞에 기증하였다.



선교지 소식

공동 기도제목

1.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영육이 강건하며,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2. 선교교회의 안정과 부흥발전 및 선교지역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3. 현지인의 복음화와 개척교회의 설립 및 현지인 사역자의 훈련과 육성을 위해...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 3/4분기 동안 장년 75명, 어린이 20명 결신, 75명에게 세례 배품.
- 선교관 건축대지 수속 완료.
- 기독교 대학교 창립 첫 돌 감사.
- 1985년 9월 23일 개교한 이래 신학대학, 경제대학, 사회정치대학, 공과대학에 1,387명의 학생과 40명의 전임교수와 52명의 강사진이 있음.

일본(유병세 선교사)

- 호로이즈미, 히로오교회 예배 인도 및 설교 담당.
- 이윤호 권사 부인 성경반 계속 인도중.
- 한인 의사 모임에 말씀증거 및 교포전도 실시중.
- 북해도 국보진료소 진료 및 입원, 외래환자, 의사, 간호원 전도.

인도(엘리야 겔간 선교사)

- 고산지대에 사용될 성경번역 사업과 전도지 배포사업을 위한 기도와 후원요망.
-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전도와 동역자를 위한 기도와 후원 요망 (의약품, 간호원 필요)

애굽(이준교 선교사)

- 10월 6일-12일, 아세아 선교협의회 주최 세계 선교대회 참석 (로스엔젤레스).
- 11월 8일, 9일 카이로 한인교회 문답식 및 추계 성례식 거행 (학습 2, 유아세례 1, 입교 1, 세례 2명).
- 동산토건 웨라톤 공사현장 예배, 포트사이드 출장예배 인도.
- 헬완교회 및 카프르 알 알라와 교회에 선교비 전달.

서독(육호기 선교사)

- 1. 뷔츠부룩교회 - ● 현재 사용중인 독일교회를 여전도회에서 대청소해 주고 환경미화에 힘쓴 결

과 독일교회와 친교가 잘되고 있음.

- 전도지 200장을 찍어 한국 사람이 많이 모이는 피엑스에서 전도함.
- 2. 하나우교회 - ● 아프리카 감비아 원주민을 위한 학용품을 전도용으로 보냄.

(비스바덴교회)

1. 비스바덴교회의 안정과 사랑과 화합을 위하여 기도 바랍.
2. 계속적인 학업과 목회를 위하여 기도 바랍.

이스라엘(김주경 선교사)

- 현재 진행중인 학업과 연구소 설립을 위하여 기도 바랍.

벨기에(김성완 선교사)

- 86.9 29-10.14 미국 방문하여 부흥회 인도(골즈보로 한인교회) 및 선교대회 참석.

●브라질 한인 선교교회에서 선교, 한글 및 한자교육, 입양아들에 대한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한글학교 시작.

●달러화 평가 절하로 로텔담, 안트위프부두에 정박중인 선박 방문 사역에 물질적 제약을 받음. 위하여 기도 바람.

파라과이(김재창 선교사)

●10월 3일 개천절 초대 만찬 참석.

●10월 12일 성례식, 학습 세례 40명, 성찬 참여자 354명.

●10월 26일 원주민 장로교 성례식 세례 11명, 성찬 참여자 40명.

●현재 기도원 대지 조성 준비중에 있음. 위하여 기도 바람.

칠레(유재일선교사)

●10월 7일 선교 협의회 개최(빌레스 목사와 개척교회를 논의).

●10월 14일 파라과이 방문(김재창 목사님과 선교 협의).

●10월 16일 중남미 노회 참석하여 부노회장에 피선.

●교회지역 50여명의 극빈자를 초청하여 예배 및 점심 대접 (기름 1병씩 지급).

텔사(강성진 목사)

●10월 5일 존 나스 장로교회에서 "세계성례주일"을 맞아 한미 연합예배로 성찬예식 집례(이날 "한국교인 총현교회"의 날로 선포하고 노회 가입을 축하하는 교회적인 환영 받음).

●10월 26일(주일) 미 오크라호마 동부노회 위임국 집례로 강성

진목사 위임식을 진행하고 본 노회의 정회원이 됨.

●선교 차량을 구입후 월부금이 누적되고 있음. 위하여 기도 바람.

뉴욕(박종만 목사)

●한인교회의 모범적인 성장과 사랑의 화합을 위하여 기도 바람.

●교인과 현지인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 바람.

홍콩(오치용 선교사)

●한인교회의 목회 및 교인복음화를 위하여 기도 바람.

●중공선교 기관과의 계속적인 유대관계 및 협력 선교와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 바람.

본부 소식

●10월 19일 실행위원회(월례회)

●10월 22일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물건 발송.

●10월 26일 제1차 국장회의(87년도 사업계획).

●10월 27일 파라과이 도서 및 임직패, 순서지 발송.

●11월 1일 제2차 국장회의(87년도 사업계획).

●11월 8일 선교 실무자 모임(유국남 목사덕에서 새해 사업 계획 및 선교 18년사 집필, 선교 대학원, 영어 교회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

●11월 16일 11월 실행 위원회.

●11월 30일 제18회 세계선교회 정기총회(102호 비디오실, 참석자-106명).

●12월 5일 각 선교지에 보낼 연말연시 선물 및 카드 발송.



모자이크된 이민총회교회
(인도판, 합석, 아자출기로 인도네시아)



식중 세례받는 수단 청년
(자이론 교회에서의 세례 애급)

교우동정

새교우

파주구역	김기영	면목구역	엄숙희	사당구역	이경희	성수구역	신현복
역삼 ~	유영순	행당구역	오제숙	충정로 ~	조명길	서초구역	함주희
개포구역	오금자	사근구역	박선옥	잠실구역	이정길	서초구역	김 철
사당구역	김성일	역삼구역	김동치	보광구역	강영화	신원구역	이황재
구로구역	정덕순	역삼구역	이선옥	서초구역	김병학	광주구역	홍영희
수유구역	이명숙	개포구역	김경옥	역삼구역	김영순	방이구역	하창옥
답십리 ~	고효순	방배구역	면운주	삼성구역	정영숙	잠실구역	박용숙
서부이촌	박윤숙	화곡구역	곽노섭	사당구역	한숙정	이태원 ~	윤현순
보광구역	김수인	전농구역	송영옥	미아구역	이진호	서초구역	김성구
반포구역	엄인화	전농구역	송영옥	잠실구역	김홍우	서초구역	박순자
대치 ~	박소간란	금곡구역	이영희	역삼구역	손복덕	불천구역	박해정
대치구역	이현구	잠실구역	김홍우	역삼구역	이택수	고덕구역	조순택
신대방 ~	최의창	보광구역	이영수	역삼구역	강남진	방이구역	최용례
방화구역	양인선	역삼구역	이지환	상도구역	김기수	잠실구역	김재철
쌍문구역	김태인	상도구역	최사화	수유구역	이명숙	역삼구역	최영준
면목구역	이정선	당산구역	주성옥	율두구역	손경자	역삼구역	박 철
서부이촌	박영선	신월구역	유영빈	석촌구역	이병선	하계구역	오지현
역삼구역	원선애	전농구역	이소영	금호구역	주정남	석촌구역	정복순
일원구역	임남주	신당구역	박연희	역삼구역	박세정	잠실구역	윤장원
대치구역	박명자	잠실구역	이옥련	역삼구역	유희정	보광구역	김원주
파천구역	신성희	보광구역	오민자	불천구역	이목자	역삼구역	신혜숙
충정구역	김인오	역삼구역	이경호	상도구역	이정숙	삼성구역	윤양구
율두구역	손경미	대치구역	신주영	수유구역	손성자	대치구역	한용자
성내구역	이혜란	방배구역	면금주	율두구역	최봉숙	방배구역	박장록
서부이촌	박현숙	당산구역	강정자	구의구역	이기순	미근구역	정 염
영동구역	유혜선	망우구역	박종서	금호구역	김현화	잠실구역	이용성
논현구역	이혜경	금곡구역	윤성남	도곡구역	최현인	역삼구역	민병록
사당구역	정충식	장안구역	황재숙	역삼구역	이병구	대치구역	천용배
신당구역	박선영	송정구역	진장환	불천구역	방만례	불천구역	박도수
잠실구역	장태숙	율산구역	장태주	대림구역	박영희	가리봉 ~	박문갑
옥수구역	이창영	역삼구역	윤세환	장안구역	안종세	삼선구역	신홍두
신사구역	여수연	서초구역	안상일	신당구역	전성배	사근구역	박성철
상도구역	송순자	역삼구역	한동남	성수구역	윤재현	북구가좌	정상수
우이구역	한일섭	논현구역	심정례	군자구역	정애순	대치구역	오애자
망우구역	임정임	창신구역	윤용만	역삼구역	김순애	신림본동	오계순
자양구역	박향옥	신당구역	노은숙	역삼구역	김국자	화곡구역	전석기
사근구역	우덕호	광희구역	김옥동	방배구역	면금주	청량구역	이창신
삼성구역	한미순	역삼구역	김현주	부천구역	김정옥	서초구역	안상일
상도구역	최성철	역삼구역	심인숙	장안구역	황재숙	역삼구역	한동남
종암구역	권희관	개포구역	권구철	신당구역	채화라		

결혼

▲김학준군(안분동권사 아들)과 김성은양(김영개장로 임순철권사 딸 3부성가대원) 10월 28일 12시 30분

▲박우정군(신월구역 박보훈성도 아들)과 김희수양 (상도구역 김형남집사 딸) 11월 1일 오후 2시

▲박순희양(휘경구역) 11월 1일 오후 1시

▲김자철군(본교회 인쇄실직원)과 박미숙양(박종연권사 딸 권철회직원) 11월 3일 12시

▲안용현군(안용걸집사 안운진권사 아들)과 유진옥양 11월 8일 오후 2시

▲엄운회군(진희순권사 아들)과 김정옥양 11월 8일 12시

▲박주만군과 김태선양(청년부회원 김태숙집사 동생) 11월 15일 12시 30분

▲김봉운군(김봉두씨 김순옥집사 아들)과 이인순양 11월 21일 오후 2시

▲박원규군과 이성애양(배정자권사 딸) 11월 22일 오후 1시

▲김민구군(길동 1구역)과 김재순양 11월 22일 오후 1시

▲김철기군(김진학씨 김성애권사 아들)과 조국현양 11월 22일 오후 2시

▲김동회군과 이선자양(주교교사) 11월 22일 오후 3시

▲송철수군(이복순집사 아들)과 박용심양 11월 22일 오후 4시

▲허성만군과 윤비현양(윤인현장로 지경애집사 딸) 11월 25일 오후 3시

▲장창희군(장덕률씨 박우순권

사 아들)과 홍순호양 11월 26일 오후 2시

▲박동천군(박상준집사 아들)과 강은숙양 11월 27일 12시

▲유관걸군과 임은경양(제 4부 찬양대원) 11월 29일 오후 1시

▲이석훈군(이배근 김은순집사 아들)과 이종권양 11월 29일 오후 2시

▲김원택군(주교 영아부교사)과 최인자양 11월 29일 오후 3시

▲송영훈군(송태호씨 박경옥집사 아들)과 박선영양 11월 29일 오후 3시

▲박용식군과 황숙희양(1부 찬양대원) 12월 4일 12시

▲박봉호군(박성찬씨 아들)과 선우정아양 12월 5일 오후 1시

▲유명일군(유용구씨 한동숙권사 아들)과 이선희양 12월 6일 오후 2시

▲최차순군과 박해숙양(역삼 1 광복회집사 딸) 12월 6일 오후 3시

▲김영수군(중화)과 이윤경양(이연상 윤병인집사 딸 중등부교사) 12월 6일 오후 3시

▲김성운군(김용석 한정심집사 아들)과 박영남양(제3 찬양대원) 12월 13일 오후 1시

▲김세영군(김석훈씨 임홍주집사 아들)과 홍영희양 12월 13일 오후 2시 30분

▲이산영군과 김성숙양(중등부교사 김광형씨 박진엽권사 딸) 12월 13일 오후 2시 30분

▲박찬수군과 한광옥양(송금주씨 딸) 12월 13일 오후 2시

별세

▲박명준성도(벽계구역) 10월 21일 별세

▲송옥임집사(노경모집사모친) 10월 24일 별세

▲김낙문(김성녀집사 부 성수 5) 11월 6일 별세

▲이정남권사(최성립장로 장모 김번자 집사 모친) 11월 12일 별세

▲김옥순권찰(면목 2구역 김신집사 누님) 11월 13일 별세

▲정명선씨(신사 3구역) 11월 19일 별세

▲양달주씨(망우 1구역 양종섭 이영숙집사 부친) 11월 20일 별세

▲조용규씨(행당3 김춘식씨 부군) 11월 23일 별세

▲이필선성도(송영옥성도 부군 이응선장로 형님) 12월 2일 별세



11·12월의 행사

□ 당 회

11월 14일/임시당회

12월 5일/12월 정기당회

□ 제적회

11월 2일/11월 정기제적회

12월 7일/특별제적회

□ 교육위원회

12월 14일/주교교사임명식

□ 구역권찰회

11월 2일/교구 간사협의회

11월 30일/제적및 구역권찰

임명식

12월 7일/교구 간사협의회

□ 전도위원회

11월 9일/의료전도단 총회

12월 7일/여전도회 실행위원회
총회

12월 11일/지하철 역삼역 추리설
치 및 성탄축하예배

□ 북한선교위원회

10월 26일/북한선교원 후원회 월
례회

11월 23일/북한선교원 후원회 월
례회

□ 출판국

11월 30일/예수님의 좋은일꾼 발
행

12월 20일/이사야 강해 설교집 2
발행

12월 20일/절기 설교집 재판 발

행

12월 20일/교회란 무엇인가 3판

발행

12월 20일/서로 사랑하자 재판

발행

12월 20일/성도의 시험 재판 발
행

12월 20일/선교란 무엇인가 재
판 발행

□ 감사위원회

12월 7일/각부 회계감사

12월 14일/각부 회계감사

편 집 후 기

○...한해동안 월간충현을 위해 귀한 글을 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깊은 관심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격려해 주신 교우들 그리고 지방에 계신 알지 못하는 월간충현의 독자들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12월, 한 해를 결산하는 달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해의 결산을 작성하여 하나님께 결재를 올렸을 때 과연 O.K싸인을 받을 수 있을까 싶다.

12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함께, 과연 우리 크리스찬의 이웃은 누구인가.

연말이 되면 매스컴과 거리에서 불우이웃돕기라는 단어가 한해의 마지막 장식처럼 우리 마음을 때린다. 그 불우이웃은 우리의 이웃이 아닌가? 우리 크리스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계명을 실천한다면 그 불우이웃 돕기라는 단어는 듣기 어려워질 것 같고 한해의 마지막이 주님 탄생과 더불어 더욱 기쁨으로 가득차지 않을까.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 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월간 충현

1986년 11·12월호

1972년	4월	30일	창	간
1986년	12월	17일	인	쇄
1986년	12월	20일	발	행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조	현	명		
주 간/이	성	근		
편집장/김	차	생		
편집위원/김	원	남		
	조	영	길	
	김	장	근	
	이	응	선	
	조	선	근	
	손	경	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62-41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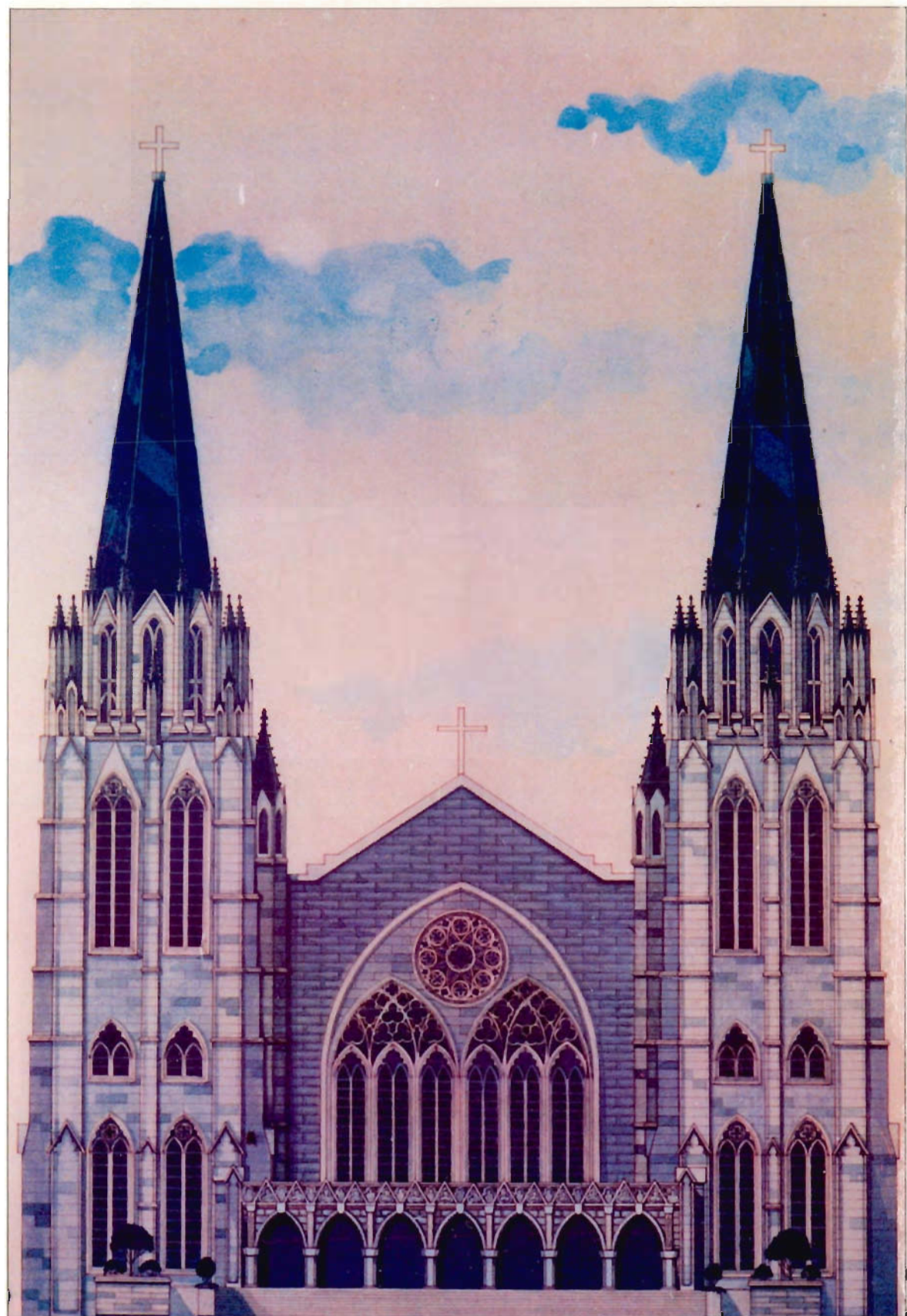
교회행사의 이모저모



①	②
③	
④	⑤

- ① 건축현장을 돌아보고 한 자리에 서신
증경총회장들(합동)과 당회장 목사.
- ② 추수감사예배시 찬양을 드리는 유치부
교사성가대.
- ③ 돌공사의 첫 삼을 뜨는 당회원들.
- ④ 동판 공사가 끝난 종탑.
- ⑤ 구역일군으로 임명받고 기도하는 장로들.





앞으로 완공될 본당 정면도